

## 경기신문

# 남양주, "미래교육 사업 신청하세요!"

초중고에 사업 설명, 20일~27일 접수  
3월 초 사업 확정하고 본격 사업 시행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일선 127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남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남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따른 다양한 사업이 선정돼 효과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일 체결한 '남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관내 127개 모든 초·중·고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차 초등부, 2차 중·고등부 순으로 이어진 이번 설명회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예술·체육 지원 사업 등의 사업 설명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학교를 위한 프로그램 홍보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클래식 교실에서는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클래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연 등을 통해 문화·예술적 소양 함양 기회를 제공하며, 테니스 교실에서는 관내 공공시설 테니스장을 학교 시간에 무료로 개방해 휴먼북 감사와 연계 한 무료 레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남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의 6개의 추진과제와 20개의 세부 사업을 나눠 추진할 계획인데,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대표 사업은 △학부모 교육역

2023년 02월 16일 (목)

## 경기신문

지역

량 강화 △마을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공교육 레벨업 프로젝트, △마을 선생님과 함께하는 지구살림 프로그램 등 총 14가지이다.

이번 사업은 마을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등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게 되는데, 오는 20일~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시와 교육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3월 초에 사업이 확정되면 이어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시 미래교육과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남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참신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이 선정돼 효과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와 교육지원청은 선정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남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의 사업비는 남양주시 33억 원,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32억 원 총 65억 원이며, 오는 20일부터 사업 신청이 시작돼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데, 연말에는 '사업성과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선정해 공유하고 격려할 계획이다.